

## 목회자가 읽어 본 법구경(4)

장 의 성(목사, 전남 고흥중앙교회)

불교의 불(佛)은 부처로 부처는 불타(佛陀), 즉 붓다(buddha)에 대한 음역이다. 그러면 붓다란 무엇인가? 붓다란 각자(覺者) 즉, 깨달은 자로서 석가모니는 선각자(先覺者)였던 것이다. 그가 보리수 나무 아래서 고행 끝에 깨달은 것을 사성체(四聖諦), 즉, 네 가지 거룩한 진리라고 하는데 고집멸도(苦集滅道)이며 이 고성체(苦聖諦), 집성체(集聖諦), 멸성체(滅聖諦), 도성체(道聖諦)에 이어 팔정도(八正道)가 붓다인 석가의 설법 요체이다. 그러므로 불교의 진리는 매우 단순하다. 여기에 삼법인(三法印)이라고 제행무상(諸行無常), 제법무아(諸法無我), 일체개고(一體皆苦)를 안다면 붓다인 석가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짐작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의 경전은 무척 방대하다. 혹자는 약 5천여 권이 된다고 하니 아마 평생에 읽어도 다 읽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들어 아는 바만 해도 금강경, 화엄경, 법화경, 유마경, 원각경 등등이 있는데 이들은 다 북방계통의 대승불교의 경전이고 남방계통의 소승 불교의 경전 중 대표적인 것으로 법구경(法句經), 아함경 등이 있다. 참고로 삼장(三藏)이라고 하면 경(經), 율(律), 논(論)으로 경은 석가

의 가르침을 기록한 것이고 율은 그의 계율, 그리고 논은 이름있는 논사(論師)들에 의해서 쓰여진 경전에 대한 해석이나 그의 불교 사상을 적은 글을 논(論)이라고 한다. 그래서 넓은 의미의 경이란 이 삼장을 의미하며, 좁은 의미의 경이란, 삼장에서서의 경을 말한다.

그러면 법구경 제 5장을 보자. 법구경 5장은 어리석은 자에 대하여 설파하고 있다.

不寐夜長 불매야장  
 疲倦道長 피곤도장  
 愚生死長 우생사장  
 莫知正法 막지정법

잠 못 이루는 자에게 밤은 길고 피곤하고  
 게으른 자에게는 길이 멀다.  
 어리석은 자에게 생사의 길이 먼 것은  
 정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인생은 니르바나(열반), 즉 천국을 향해 가는 나그네들이다. 그 길을 찾는 사람들이 구도자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길을 알지 못하기에 방황하며 고생한다. 길에는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으나 어리석은 사람은 생명의 길을 버리고 사망의 길을 택한다. 성경 잠언은 이렇게 말한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잠 14:12)

癡意常冥 치의상명  
 逝如流川 서여유천  
 在一行疆 재일행강  
 獨而無偶 독이무우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항상 어두워서  
 가는 것이 흐르는 개울과 같다.

혼자 굳세게 행하여  
그들과 짝하지 말라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듯이 도반(道伴), 길동무는 무척 중요하다. 어떤 친구를 친구로 삼는가에 따라 생명의 길을 가기도 하고 사망의 길을 가기도 한다. 어리석은 사람을 친구로 삼느니 홀로 길을 가는 고독도 감수해야 한다. 예수님은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은 좁은 문이지 넓은 길은 아니라고 하셨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마 7:13-14)

愚人著數 우인저수  
憂感久長 우척구장  
與愚居苦 여우거고  
於我猶怨 어아유원

어리석은 사람은 수에 집착하여  
근심과 슬픔이 오래 간다.

어리석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 괴로워서  
나 자신에 대해서도 오히려 원망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눈에 나타나는 것에 치중하기에 숫자에 집착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가 보다. 다다익선(多多益善)인 줄만 알고 무조건 많은 것, 큰 것을 추구하다 보니 세계 최대라는 수식어를 붙이기 좋아하는데 숫자놀음에는 얼마나 허수(虛數)가 많은지 모른다. 이렇듯 어리석은 사람은 허수에 사로잡혀 웃고 울다가 나중에 잘못된 것을 알면 누군가를 원망한다.

有子有財 유자유재  
愚惟汲汲 우유급급  
我且非我 아차비아

何憂子財 하우자재

자식이 있고 재물이 있다 하여  
어리석은 사람은 오직 이에 급급하지만  
나 또한 나가 아닌데  
어찌 자식과 재물로 근심하라

우리네 근심 걱정的大部分은 자식 걱정, 재물 근심이 주종을 이룬다. 그러나 자식도 내 자식이 아니고 재물도 내 재물이 아님을 안다면 우리의 걱정 근심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아마 어이가 없을 것이다. ‘나’라는 존재 자체도 무상(無常)이고 무아(無我)인데 하물며 내 자식이 어디 있고 내 재물이 어디 있던 말인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을(롬 11:36) 일찍 깨달은 사람은 그만큼 복이 있다. 적어도 쓸데없는 걱정 근심에서 해방되니까.

愚矇愚極 우몽우극  
自謂我智 자위아지  
愚而勝智 우이승지  
是謂極愚 시위극우

지극히 어리석고 몽매하면서도  
스스로 나는 지혜롭다고 말한다.  
어리석으면서 지혜로움을 이기려는 것을  
일컬어 지극히 어리석다고 한다.

공자는 일찌기 위정 17장에서 “아는 것을 안다고(知之爲知之)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不知爲不知)고 하는 것이 아는 것(是知也)이다”라는 명언을 남겼는데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모르는 것도 아는 척한다.우리가 알면 알수록 모른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되지만 어설피

게 알면 제법 아는 줄로 착각하는 법이다. 성경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잠 9:10)고 하였거니와 하나님은 지식의 대상이 아니라 경외의 대상이다. 하나님을 지식의 대상으로 혹은 인식의 대상으로 삼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히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왜곡된 지식만을 갖게 될 것이다.

頑闇近智 완암근지  
 如瓢斟味 여표짐미  
 雖久狎習 수구압습  
 猶不知法 유부지법

어리석은 자는  
 한평생 현명한 이와 사귀더라도  
 진리를 모른다.  
 마치 숟가락이 국 맛을 모르듯이.

진리란 실존적으로 체험되어지는 것이지 관념적으로 추론하여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진리란 맛을 보아야 아는 것이며 듣기만 한다고 보기만 한다고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마치 국물의 맛을 숟가락과 혀가 대하는 것의 차이와 같다.

開達近智 개달근지  
 如舌嘗味 여설상미  
 雖須臾習 수수유습  
 卽解道要 즉해도요

그러나 지혜 있는 사람은  
 잠깐 동안 현자와 사귀더라도  
 그는 곧 진리(眞理)를 안다.  
 마치 혀가 국맛을 알 듯이.